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26)

1.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대한 반응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 총리는 26일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종료 통보는 유감이다. 한일 관계가 한미일의 안전보장상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라고 강조¹⁾

2. 한일 경제인 회의의 일본 재계 입장 관련

□ [일본 재계 동향]

- 한일 경제협회의 사사키(佐々木)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구축해 온 경제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할 것” 이라고 발언²⁾
- 다만 일본 경제계는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³⁾
- 한편 닛케이에는 이수훈 전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일본 모두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라고 제기하였지만 회의장 내에서 이에 관하여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약했다고 보도⁴⁾
- 일본 아세아 대학교의 오키다 교수는 회의에서 “일본 기업도 수출관리 강화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라고 발언

3. 한국 정상의 UN 연설 관련

1) 「韓国のGSOMIA破棄 首相「一方的な通告残念」」 『産経新聞』(2019. 9. 26).
2) 「日韓経済人会議：日韓経済人会議 関係改善へ決意、共同声明を採択」 『毎日新聞』(2019. 9. 26).
3) 「日韓経済人会議 早期改善を要望 韓国側、政経の距離で苦慮」 『産経新聞』(2019. 9. 26).
4) 「日韓経済界「危機を憂慮」、企業トップら、直接の政府批判は封印。」 『日本経済新聞』(2019. 9. 26).

□ [일본 언론 동향]

-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 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을 강조했다” 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염두에 두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논평⁵⁾

4. 한일 갈등이 양국 경제 분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⁶⁾

□ [일본 언론 동향]

-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남부 도시 소재 한 중소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 개발에 필요한 아민 화합물의 수입을 한국 수입업자가 단념한 까닭에 소재 양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 해당 기업은 PC용 모니터를 고화질로 만드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서, 소재 개발에 필요한 아민 화합물 등 2가지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아민 화합물은 일본이 개별허가제로 전환한 반도체 관련 3개 소재가 아니며,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백색 국가 제외와도 관련이 없음.

- 한국 수입업자가 해당 원료의 수입을 포기한 이유는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대기업 등의 재고확보 노력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임.

- 이 중소기업은 소재를 양산해서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었음. 거래처 중국 기업은 미국에 모니터를 수출하고 있어서, 거래 규모는 작지만 일본→한국→중국→미국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공급망에 타격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평가하고 있음.

- 한편 공기압 밸브 등을 생산하는 한 중견기업은 일부 부품의 대일 의존

5) 「文氏、演説で日本牽制 貿易・歴史名指し避け言及」 『産経新聞』(2019. 9. 26).

6) 「日韓経済、崩れる分業 規制対象外でも取引萎縮」 『朝日新聞』(2019. 9. 26).

도가 80%에 육박,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대비가 어렵다”고 토로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과의 거래는 리스크”라는 불안감이 한국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

- 다만 아사히 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및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수입처 다변화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에게도 손해라는 평가도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

5. 한국 관광객 급감 관련

□ [동향]

- 일본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8월 방일 한국인 여행객 수와 관련, 간사이 공항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약 53.8%(69,800명),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49.4%(51,300명) 입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⁷⁾
- o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대마도의 경우 91.1%(1,100명) 감소하는 등 관광객 급감이 두드러짐.

□ [일본 정부 동향]

- 에토(衛藤) 오키나와·북방담당 장관은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문화교류 및 관광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호소⁸⁾
- 한편 에토 장관은 대마도 시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활용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표명⁹⁾

7) 「韓国客、関空と福岡半減 8月 対馬の厳原港は91%減」『静岡新聞』(2019. 9. 26).

8) 「(#政界ファイル) 衛藤・海洋政策担当相が対馬視察、韓国人観光客激減に「日本から排斥したわけではない」」『朝日新聞』(2019. 9. 26).

9) 「韓国人観光客が大幅減少 長崎 対馬に支援検討 衛藤沖縄北方相」『NHK NEWS WEB』(2019. 9. 26).